

1. 2014 ~ 2019년생 (남,녀 공용)

안녕하세요. 리틀보이스 12기 오디션에 응시하는 000 입니다.

내레이션

하루의 끝, 문을 열면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녀왔습니다. 매일 나를 맞이해주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애정을 쏟는 가족이에요, 나의 나무들이죠. 저는요. 잠들기 전 아빠와 책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을 기다려요! 저마다 다른 시간이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우리 곁의 다양한 가족, 행복을 위한 같은 이야기. 다른 모습, 다른 하루를 살아가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같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연기

나 정말 진 거 아니거든요? 개들이 나보다 나이 더 많다고요! 아까 나랑 싸운 애들이요. 개들은 1월생이고, 나는 12월생이거든요? 옛날로 치면 개들은 빠른 년 생이고 난 12월이니깐 개들이 나이 더 많은 거라고요. 그니까 사실은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가 이긴 거라고요. 음.. 저는 저쪽으로 학원 가야 돼요. 어.. 원래는 남들이 주는 과자 같은 거 안 받지만,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라 받은 거예요. 어? 오락실 가는 거예요? 어른이 이 시간에 오락실 가요? 어린이도 학원 가는데? 오락실에서 인생이요? 정말요...? 어... 안 돼요.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딱 한 판이면.. 정말.. 어쩔 수 없죠. 아저씨가 같이 하자고 해서 딱 한 판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한 판이에요!